



Monthly Customs Newsletter



【 대표관세사 인사말 】

매년 그렇듯이 2014년 또한 무수히 많은 일들과 이야기들이 오간 한해였습니다. 일년이라는 시간은 짧은 시간이 아니기에 크고 작은 일들이 생기는건 당연한 일이지만 새로운 한 해는 좋은 일들만 가득 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2014년 한해 보내주신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 덕분에 회사의 발전과 성장이 가능했습니다. 올 한해도 관세법인 청우 임직원 일동은 고객과 더불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5년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행운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관세법인 청우 대표 관세사 봉용남



【 관세동향 】

▶ 한국 제품 직구에 폭 빠진 '하이타오족'

우리나라에서 '요우커'는 중국인 관광객을 뜻한다. 이들은 한 번에 대량으로 구매하고, 고가의 물품을 산다는 특징이 있다. 최근 요우커만큼 큰 손으로 불리는 '하이타오족'이 뜨고 있는데, 하이타오족이란 인터넷으로 국외 제품을 쇼핑하는 중국의 해외 직구족을 말한다.

KOTRA 난징무역관은 한국 제품을 직구하는 하이타오족이 매년 급증함에 따라 11월 11일 '광군제'를 맞아 국내 쇼핑몰이 다양한 이벤트를 여는 등 우리 전자상거래업계에 새바람이 불고 있다고 11월 26일 전했다.

지난해 하이타오시장의 매출액 규모는 약 744억 위안(약 13조 3,190억원)으로 2009년부터 매년 2배씩 오르고 있는데, 이들이 하이타오를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격이다. 직구 상품 가격에 해외 배송비까지 더해도 중국에서 외국 제품을 구매하는 것보다 저렴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제품의 양극화인데, 실제로 많은 중국인은 자국 제품에 대해 아주 고급인 제품은 가격이 비싸고, 아주 저렴한 제품은 질이 떨어져 중간급의 제품이 많지 않아 외국 제품을 직구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마켓은 중국어 전용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웨이보, 바이두 등 중국인이 많이 찾는 사이트에 할인행사 등을 광고하며 하이타오족을 끌고 있다. 또 다른 국내 쇼핑몰 롯데닷컴은 글로벌 롯데닷컴을 오픈하고 11월 11일 광군제를 맞아 무료배송 이벤트를 진행했으며, 인터파크도 뒤따라 중문 및 영문판 글로벌 사이트를 오픈해 하이타오시장에 뛰어들었다.

KOTRA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외국 제품을 직구하는 해외소비자는 점차 많아지고, 소비 규모는 연 3,700억원에 달하는 만큼 전자상거래는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시장"이라며, "그동안 한국 화장품과 의류에 대한 중국인의 관심은 높았지만, 물품 가격이 비싸고 관세까지 부과돼 직구를 포기하고 구매대행을 통해 한국 제품을 구매하는 추세였으나, 한·중 FTA에 전자상거래가 포함되면서 중국인의 한국 상품 직구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반면 한·중 FTA로 관세가 낮아지더라도 몇 가지 문제점은 남아있다. 직구 구매경험이 있는 일부 중국인은 가입과 구매절차가 복잡해 기준 환율을 적용해주는 구매대행이 더 편리하다고 밝혔고, 한국 쇼핑몰이 중문사이트를 오픈하면서 중국의 대표적인 결제시스템인 '즈푸바오'를 도입하고 있어, 한국 결제시스템 시장의 잠식이 우려되는 등 이러한 문제점을 타개할 만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 관세동향 】

▶ 해외 직구, 주민등록번호 쓰면 집중 심사

해외 직구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세관당국이 명의도용 피해를 막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면 통관을 까다롭게 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최근 해외 직구 물품이 급증함에 따라 가격 조작 등 통관을 부적정하게 하면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통관상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실제로 소비자는 수수료와 세금 등을 업체에 정당하게 지불했으나, 구매대행 업체 등이 이를 가로챌 목적으로 가격을 낮춰서 허위로 통관하거나 소비자의 명의를 몰래 이용해 상용 물품을 개인이 수입하는 것처럼 불법 통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애매한 소비자만 세관의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관세청은 이러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통관과 관련된 정보를 소비자에게 대폭 확대 공개했는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portal.customs.go.kr)을 이용해 본인이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의 통관방법, 수입신고내역, 통관진행 현황, 업체정보 등 다양한 통관진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명의도용을 막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 사용할 것을 권장했다. 이에 올 12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면 일정 비율은 중점 검사해 통관 제한물품 반입 여부와 개인정보보호 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심사하는 등 통관을 까다롭게 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물품을 구매하기 전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서 제공하는 해외 직구 물품 핵심 질의응답 매뉴얼과 예상세액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면세통관 범위와 예상세액 등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다.

한편 관세청은 해외 직구 활성화를 통해 수입소비재의 수입구조를 다양화하기 위해 올해 6월 16일 해외 직구 물품에 대한 통관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는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식의약품 등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의 통관 편의를 높이기 위해 목록통관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그 결과 해외 직구 물품의 전체 수입물량은 비슷했으나, 목록통관의 비중은 32%에서 50%로 크게 늘었고 새롭게 목록통관 혜택을 받게 된 품목의 통관 건수도 68만 건에서 105만 건으로 54%, 금액은 1억 300만 달러에서 1억 5,800만 달러로 53%가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관세동향 】

▶ 자동간이 환급업체 심사 주기, '1년→2년' 연장

관세청은 수출업체가 관세환급 제도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11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에 따르면, 먼저 자동간이 환급업체에 대한 심사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심사에 따른 부담을 덜고, 환급 신청은 업체가 편리한 곳에서 할 수 있도록 관할지 세관 외에 변경지 세관에서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유무역지역(FTZ) 입주 기업에 같은 환급대상 원재료를 계속 공급할 경우,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15일 단위로 한 번에 일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받기 위해 반입확인서를 공급할 때마다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 밖에도 국내 거래된 물품을 수출 신고할 때 원산지, 상표명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개정하고, 기납증이나 분증의 발급신청 시 내야 하는 서류 중에 전자통관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수입신고필증 등의 서류는 제출을 생략하도록 했다.

관세청은 "그동안 관련 업계의 개선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올해에만 환급 관련 고시를 3차례 개정했고, 앞으로도 수출기업이 더 신속하고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와 규정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 관세동향 】

▶ 까다로운 무역기술장벽 극복하면 新 수출시장이 열린다!

KOTRA는 12월 10일 '지역별 무역기술장벽 동향과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CIS 지역뿐 아니라, EU, 중동, 아프리카 등에서도 인증, 표준 등의 무역기술장벽(TBT)이 권역별로 통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은 까다로운 '권역별 공동 TBT'라는 과제를 떠안게 됐지만, 이를 극복하면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TBT는 1995년 WTO 출범으로 관세라는 전통적인 무역장벽이 완화되면서, 그 대안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2008년 금융위기와 보호무역주의의 부상은 다시 한 번 TBT가 급증하는 계기가 됐고, 최근에는 개발도상국과 신흥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국제표준을 도입한다는 목적으로 TBT를 주도하고 있다.

실제로 에콰도르로 타이어를 수출하는 O社は 제품 선적 후 갑작스럽게 개정된 기술규정 때문에 수출하지 못하고 새롭게 인증을 취득하기 전까지 창고보관비를 지불해야 했다. 또한 높은 인증취득 비용 역시 수출기업에는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의료기기를 수출하는 B社は 1만 달러를 수출하기 위해 인증취득 비용이 1만 5,000달러가 든다는 소식을 듣고 수출을 포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보고서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어려움이 지역별 TBT 통합화 동향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유럽에서는 EU가 제정한 기술규정 및 인증을 회원국뿐 아니라 비회원국도 채택하고 있으며, 중동 국가도 걸프협력회의(GCC) 표준인증기구를 통해 공동 기술규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이 밖에도 북미의 NAFTA, 남미의 태평양동맹, 호주와 뉴질랜드 등 경제통합 움직임을 보이는 지역에서 공동인증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TBT가 적은 아프리카의 동아프리카 협력체(EAC)에서도 공동 기술규제 정책을 취하고 있어, 앞으로 이러한 추세는 더욱 확산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지역별로 기업에 요구하는 기술 수준은 상향 평준화되고 있어, 기업의 주의를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KOTRA 오혁종 통상지원실장은 "우리 기업은 TBT를 극복하기 위한 인증 취득을 '비용'이 아닌 '장기적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며, "우리 기업은 기술인증을 취득해 경쟁국의 상품과 차별화할 수 있고, 현지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FTA 뉴스]

▶ 한·호주 및 한·캐나다 FTA, 국회 비준동의 '완료'

우리나라가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호주, 한·캐나다 FTA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호주 FTA가 지난해 12월 실질 타결하고 올해 4월 8일 서명했으며, 한·캐나다 FTA는 올 3월 타결하고 9월 22일 서명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호주의 GDP가 1조 5,000억 달러로 1인당 GDP는 6만 5,000달러에 이르고, 캐나다는 GDP 1조 8,000억 달러로 1인당 GDP는 5만 2,000달러에 달하는 등 각각 세계 12위와 11위의 경제대국이라고 소개하며, 우리나라와의 교역과 투자를 확대하는 데 잠재력이 큰 국가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중국, 일본 등 경쟁국과 비교해 가장 먼저 FTA를 타결함으로써 가격 경쟁력 제고 등으로 시장선점에 유리한 위치를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산업부는 두 FTA 모두 양측이 10년 내 현재 교역 중인 대다수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는 데 합의해 현재 303억 달러 수준인 호주와 100억 달러 수준인 캐나다와의 교역을 더욱 확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對호주, 對캐나다 투자규모를 고려할 때 ISD 조항을 포함한 FTA 체결로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투자자 보호도 보장해 투자 활성화도 이끌 것으로 기대했다.

무엇보다 호주와 캐나다로부터 유연탄, 원유 등 에너지·자원의 수입이 많아 앞으로 안정적인 자원 확보는 물론,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한·EU FTA 이후 유럽産 원유의 수입이 증가한 것처럼 호주, 캐나다와의 FTA로 이들 국가에서 수입하는 에너지 자원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12월 3일 국내 절차 완료를 알리는 서한을 호주와 교환해 12월 12일 한·호주 FTA를 발효하기로 합의했으며, 한·캐나다 FTA는 내년 1월 1일 발효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한·호주, 한·캐나다 FTA 모두 양국이 국내 절차를 완료했음을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날 발효한다. 현재 호주는 의회 심의 등 한·호주 FTA 발효를 위한 자국내 모든 절차를 완료했으며, 캐나다도 올해 안으로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는 11월 25일 의회 심의 완료 후 내각 승인만 남은 상황으로 12월 중순을 예정하고 있다. 한·호주, 한·캐나다 FTA는 발효 시 각각 우리나라의 10번째, 11번째 FTA로 기록에 남는다.



[FTA 뉴스]

▶ 한·베트남 FTA, “실질 타결”

부산에서 열린 한·ASEAN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12월 10일 마련한 한·베트남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베트남 FTA를 실질 타결했음을 공동 선언했다. 한·베트남 FTA는 우리나라의 15번째 FTA로 베트남은 ASEAN 국가로서는 우리나라의 제2의 교역국이자 제1의 투자대상국이다.

산업부는 한·베트남 FTA가 수출과 투자의 선순환으로 양국이 서로 이익을 기대하는 상생형 FTA라고 소개했다. 베트남은 우리 기업의 글로벌 가치 사슬에 있어 핵심과 같은 조립·가공단지 역할을 하는 국가로 현지 투자기업을 위한 소재·부품 수출이 對베트남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한·베트남 FTA로 합성수지, 편직물, 아연도강판, 자동차 부품 등 주요 소재·부품 품목의 관세를 철폐함에 따라 우리 기업은 소재·부품 등 중간재 수출이 늘고, 베트남은 해외 투자 유치 확대와 수출 증가라는 효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산업부는 한·베트남 FTA를 빠르게 성장하는 베트남 내수시장에 우리 기업이 진출할 기회를 늘리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베트남은 인구가 9,000만 명에 이르는 떠오르는 신흥 시장이자 매년 약 5~6%대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국가로 앞으로 소비재 수요가 크게 늘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승용차와 화장품, 생활 가전 같은 소비재 품목을 다수 개방함으로써 기존 소재·부품 중심의 對베트남 수출 품목을 고부가가치 최종 소비재 등으로 다변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 분야는 건설, 도시계획·조경, 기타 기계·장비 임대 분야를 추가 개방해 베트남의 도시화와 경제발전에 따른 건설시장 진출에 유리한 조건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이어 베트남 제2위 투자국이지만 투자 건수만 보면 1위국이라며, 현재 3,320여개의 기업이 진출한 상황에서 한·베트남 FTA로 현지 진출기업의 어려움을 덜고 현지 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도 장치를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송금 보장과 수용 시 정당한 보상, 투자자-국가 간 소송제도(ISD) 절차 개선 등 기존 한·ASEAN FTA 투자협정과 한·베트남 양자 투자보장 협정(BIT)보다 높은 수준의 투자 보호 규범에 합의했다.

이밖에도 기존의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이상의 수준 높은 저작권 조항을 채택함으로써 베트남 내 한류 콘텐츠를 보호할 제도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동시에 협력 챕터에 베트남 내 한류 문화 확산을 위한 문화 관련 협력 규정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앞으로 세부 기술 사안에 관한 협의를 마무리하고 협정문 법률 검토(Legal Scrubbing)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가서명을 완료할 예정이며, 이후 협정문 영문본 공개, 정식 서명, 국회 비준 등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AEO 뉴스]

▶ **관세청, '2014 AEO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관세청은 11월 28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주요 경제단체 및 학계 인사, 수출입업체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 AEO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었다.

이번 대회에는 예비심사를 거쳐 총 8개의 수출입 및 물류 분야 AEO 업체가 출전해 대상에 삼성디스플레이(주)의 '마하경영, AEO와 함께!'가 선정돼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을 받았고, 금상에는 아진산업(주), 은상에는 (주)엘지화학, 동상에는 대구택(유)가 각각 선정됐다.

한편 이날 김낙희 관세청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많은 중소 수출기업이 AEO 공인을 받아 AEO MRA(상호인정협정) 효과를 최대한 누리도록 지원하는 '업무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관세청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유망 중소 수출기업을 발굴해 AEO 공인획득을 지원하는 데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했다.

※ **AEO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가업체 발표주제**

1. (주)대한항공 - 항공물류 AEO 표준을 위한 우리의 노력
2. (주)LG화학 - 처음부터 끝까지, AEO로 무장하다
3. 아진산업(주) - 작은 거인! AEO로 세계와 통하다
4. 대구택 - AEO 하나면 내부통제관리 끝!! 무결점 운송관리도 끝!!
5. 삼성디스플레이(주) - 마하경영, AEO와 함께
6. 현대글로벌비스(주) - 현대글로벌비스 AEO로 도약하라
7. (주)엠케이캠앤티텍 - 중소 수출기업 도약의 초석이 된 AEO
8. (주)호텔신라 - AEO 인증으로 내부역량 강화를 통한 글로벌전략을 구축하다



[AEO 뉴스]

▶ **중소 수출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하세요!**

내년 중소 수출기업의 AEO 공인획득을 지원하기 위한 대상업체를 모집한다.

관세청은 중소 수출기업의 AEO 공인획득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도 중소 수출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계획'을 12월 16일 공고하고, 12월 17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지원 대상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AEO 공인획득 컨설팅 비용의 최대 80%까지 지원하며, 지원 한도액은 3,000만원 이내가 될 전망이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개성공단 입주기업 포함) 중 수출물품의 제조와 관련된 기업으로, AEO 공인획득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신청기간은 12월 17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고,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평택 등 본부세관 심사부서에서 접수해 내년 2월에 지원 대상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며, 제주지역은 광주세관으로 신청하면 된다.

참고로 중소 수출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은 대기업과 비교해 인력과 자금 여건이 좋지 않아 공인획득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공인획득에 필요한 컨설팅비, 교육비 등 일부 비용을 정부가 보조하는 사업이다.

* 문의 : (사)한국AEO진흥협회 : 070-4070-7216/7957, 관세청 심사정책과 : 042-481-7894



고객께 드리는 청우의 약속

- ❖ 최상의 고객 서비스 약속
- ❖ 최고의 전문가 서비스 약속
- ❖ 축적된 노하우를 통한 기억이익 실현 동참의 약속
- ❖ 변함없는 고객 관리와 기업 비밀유지 준수의 약속

Contact Us

- Tel. 032-744-8001 (代)
- Fax. 032-744-8006 (代)
- E-mail. newsletter@cwcustoms.co.kr